

『고래가 그물에 걸렸어요』 독후 활동지



로버트 버레이 글 | 웬델 마이너 그림 | 이정모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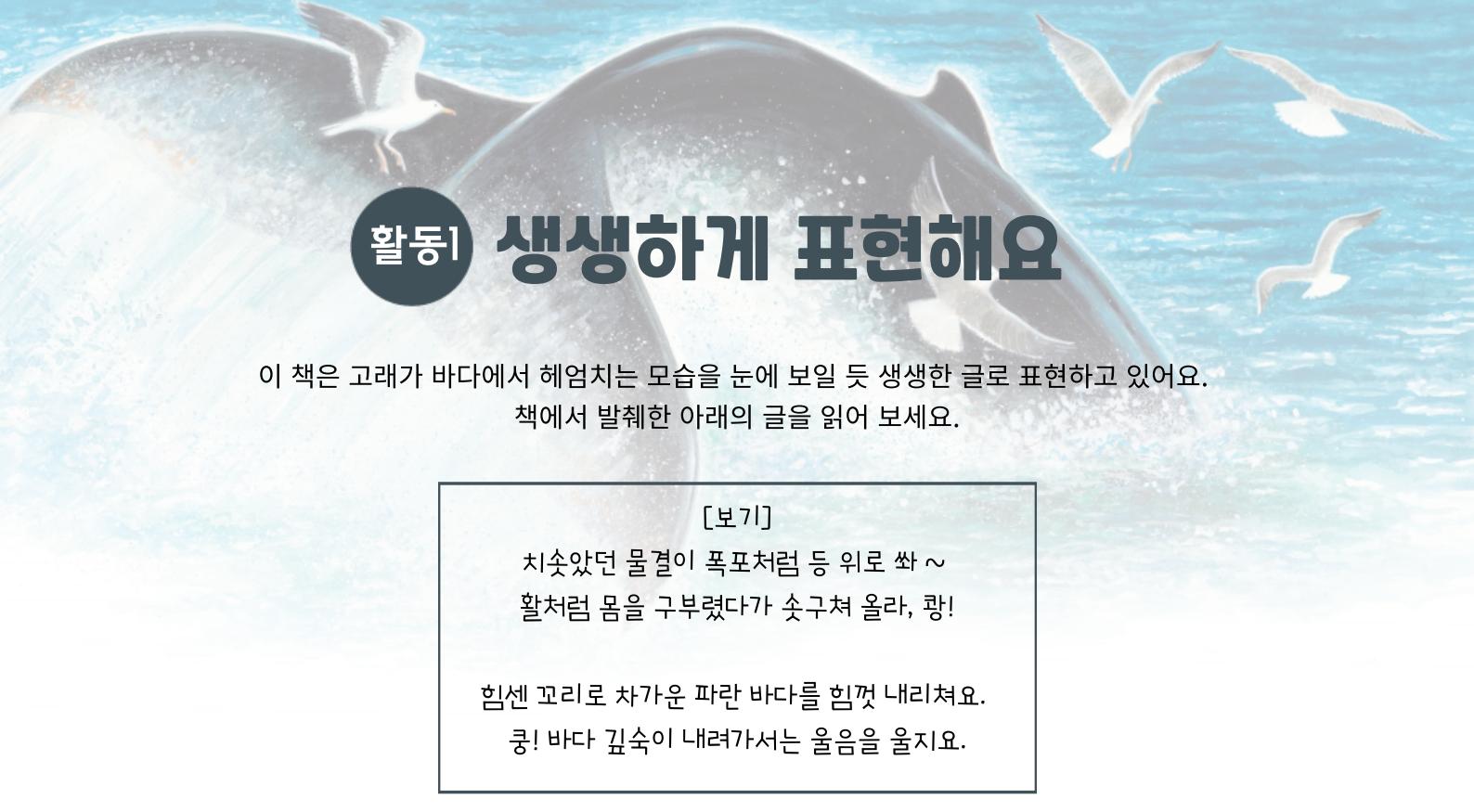
불광출판사 | 36쪽 | 1-2학년 창작동화

우리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8

“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그림책

”



활동1

생생하게 표현해요

이 책은 고래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눈에 보일 듯 생생한 글로 표현하고 있어요.
책에서 발췌한 아래의 글을 읽어 보세요.

[보기]

치솟았던 물결이 폭포처럼 등 위로 쏴~
활처럼 몸을 구부렸다가 솟구쳐 올라, 광!

힘센 꼬리로 차가운 파란 바다를 힘껏 내리쳐요.
쿵! 바다 깊숙이 내려가서는 울음을 울지요.

이 모습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굉장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고래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영상을 찾아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써 보세요.
-
-

- 보기의 글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감상과 표현으로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을 묘사해 보세요.



활동2

혹등고래의 자기 소개

혹등고래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책을 통해 혹등고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여러분을 위해 혹등고래가 자기소개를 준비했어요. 책 속의 '혹등고래에 대하여' 와 '알고 있나요?'를 참고하여 혹등고래의 자기소개를 완성해 보세요.

우리 무리는 종종
'()'로 고기를 잡아.
수많은 거품을 뿜어서
먹잇감을 혼란에 빠뜨리자.

우리 고래들은 어류가 아니라
'()', 그러니까
젖먹이동물이지. 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로 숨을 쉬어.

우리는 '()'이
아주 두꺼워서 열을 몸 안에
가둘 수 있어. 그래서 겨울에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지.

우리의 울음소리는 바닷속에서
몇 분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멀리까지 전달 돼. 과학자들은
우리가 '()'로
대화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미터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어.

헤엄을 아주 잘 치고 물에서
솟구쳐 오를 수도 있지. 사람들은
우리를 '()'
라고 불러.

우리의 학명은 메갑테라.
'()'라는
뜻이지.

활동3

바다를 괴롭히는 쓰레기

혹등고래가 고기잡이배가 버리고 간 그물에 걸려 위험에 처했던 것처럼,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그물은 수많은 동물의 목숨을 앗아 가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문 기사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너무 괴로워요...제발 그만" 쓰레기에 신음하는 동물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은 800만 톤 이상이며 그 중 버려진 어망만 약 64만 톤에 달한다. 게다가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마다 바닷새 100만 마리,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죽어 가고 있다. 동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거나 폐그물에 몸이 엉켜 심각한 외상을 입는다. 그들이 먹은 플라스틱은 소화되지 못한 채 몸속에 쌓이고, 그물망은 살갗을 파고들어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출처 : 뉴스펭귄(<https://www.newspenguin.com>)

- 신문 기사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얼마나 되나요?
-
-
-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해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어 가는 동물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
-
-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는 단순히 지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양 생물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
-
-

- 아래는 해양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동물의 모습입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써 봅시다.



1

쓰레기를 줄이자

2

환경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자

3

활동4 환경 토론

우리나라는 고래의 불법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옮긴이인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의 글입니다. 글을 읽고 고래잡이와 고래 고기 유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생각해 본 후, '우리나라 법은 고래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책을 함께 읽은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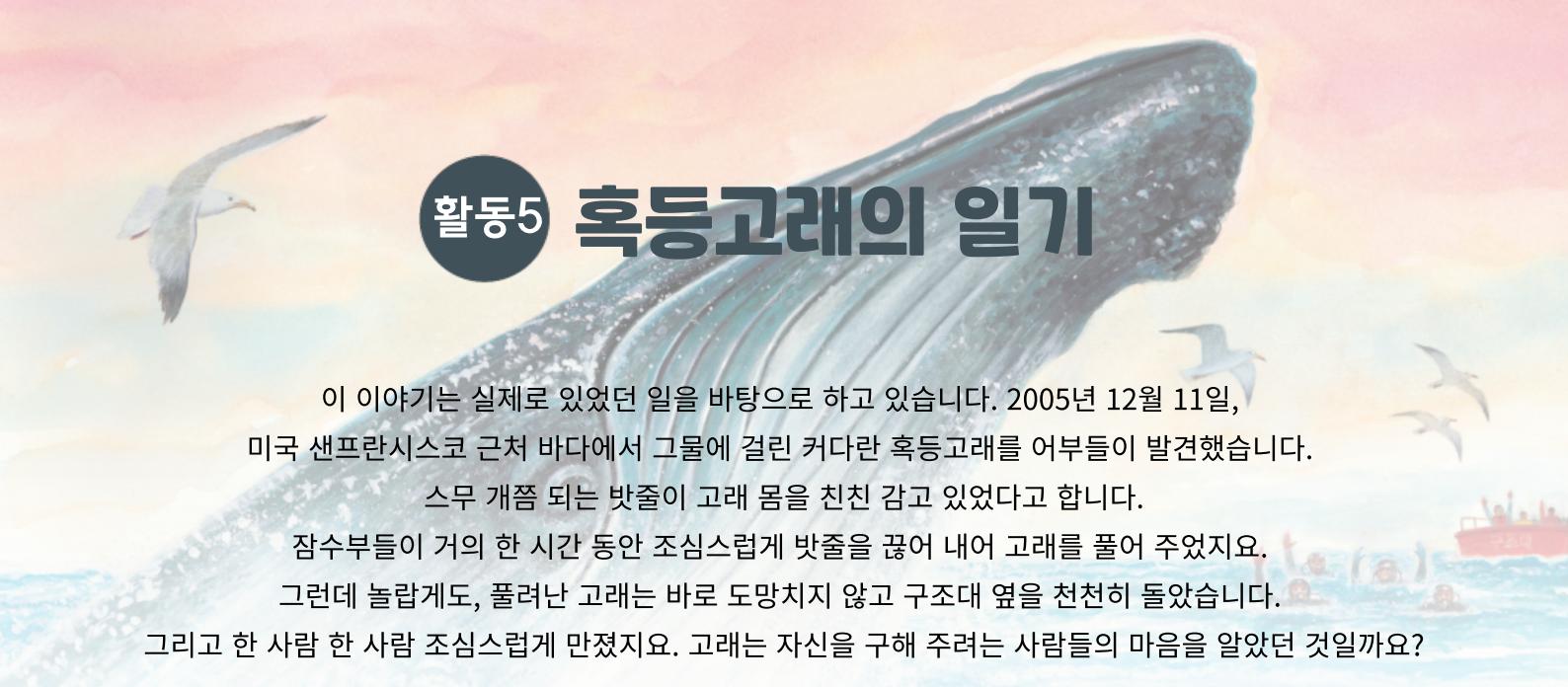
그물에 걸린 고래는 얼른 구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로 팔리지요.
혹시 우리에게는 고래를 구조하기보다는 고래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은 아닐까요? 전 세계에 고래는 몇 마리 남지 않았습니다.
동해에 그렇게 많았던 귀신고래가 나타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지요.
이 책을 본 어린이들이 고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옮긴이 이정모

<토론을 준비할 때 생각해 봐야 할 것들>

-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맹크고래는 매년 200마리가량이라고 합니다. 모두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이 맞을까요?
- 고래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토론 주제	우리나라 법은 고래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을까?
주장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 반대) 함
근거1	
근거2	
상대 토론자의 의견 정리	



활동5

혹등고래의 일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처 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커다란 혹등고래를 어부들이 발견했습니다.

스무 개쯤 되는 밧줄이 고래 몸을 친친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수부들이 거의 한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밧줄을 끊어 내어 고래를 풀어 주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풀려난 고래는 바로 도망치지 않고 구조대 옆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심스럽게 만졌지요. 고래는 자신을 구해 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요?

내가 혹등고래가 되어 그날의 일기를 써 봅시다. 그물에 걸려 죽어 가던 고통스러운 시간에서부터
그물에서 풀려나 바다로 자유롭게 돌아간 이후까지, 고래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